

5·18민주묘지 추모 물결...“잊지 않겠습니다”

5·18민주화운동 46주년

학생·시민 등 참배객, 김경철·문재학 열사 묘역 참배 헌법전문수록 무산 아쉬움도...옛 전남도청으로 발걸음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했습니다. 1980년 5월을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5·18민주화운동 46주년을 나흘 앞둔 14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에는 오월 광주의 의미를 되새기려는 참배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민주묘지 정문 앞에는 ‘당신들의 용기, 오늘의 대한민국이 됐습니다.’ ‘기억은 힘이 됩니다. 5·18을 잊지 않겠습니다’ 등 추모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내걸렸다.

이날 묘지를 찾은 전북 순창 세솔중학교 2학년 학생 67명은 “임을 위한 행진곡”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추념문을 지나 추모탑 앞에 차례로 섰다. 학생 대표 3명이 분향을 마친 뒤 고개 속여 묵념하며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학생들은 이후 5·18 희생자인 김경철 열사와 소설 ‘소년이 온다’ 속 동호의 모티프가 된 문재학 열사의 묘역을 차례로 참배했다.

양경자 도덕교사가 묘비에 적힌 내용을 읽어주자 학생들은 조용히 귀를 기울이며

애도의 시간을 가졌다. 양 교사는 “교과서로만 접했던 1980년 5월을 현장에서 더 자세히 알 수 있었다”며 “내년 체험학습에는 전일빌딩245와 옛 전남도청 등 다크투어리즘 장소도 방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타 지역 방문객들의 참배도 이어졌다. 인천에서 온 이종만 인천희망지역자활센터장(60)은 “5월이 되자마자 카카오톡 배경 사진을 5·18민주묘지로 바꿨다”며 “2024년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5·18민주화운동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함께 함을 더욱 크게 느끼게 됐다”고 말했다.

주정희씨(52)는 “울지 않겠다고 다짐했는데 묘지를 보는 순간 눈물이 났다”며 “오월이 올 때마다 민주주의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된다”고 전했다.

참배를 마친 시민들은 민주주의 문 앞에 마련된 리본에 ‘기억하고 계승하고 실천하겠습니다.’ ‘오월의 숭고한 희생을 기립니다’ 등의 문구를 적으며 추모의 뜻을 남겼다.



46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앞두고 14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은 시민들이 묘역을 둘러보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일부 방문객들은 묘지 내 매점에도 들렀다. 매점에는 음료와 아이스크림, 지역 공예 작가들이 5·18민주화운동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기념품 등이 비치됐다. 참배객들은 휴식을 취하며 5·18 관련 사진과 기록물을 둘러봤다.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이 무산된

데 대한 아쉬움도 나왔다. 충북 옥천에서 온 고재남씨(71)는 “12·3 내란 사태 이후가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을 적기였는데 개헌 논의가 무산돼 안타깝다”며 “5·18 정신은 반드시 헌법 전문에 수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1980년 5월21일 전남도청 발포 당시 유탄에 옷이 찢어졌던 기억을 아직도 잊을 수 없다”며 “묘지를 보니 돌아가신 분들께 미안하고 감사한 마음이 든다. 오후에는 전일빌딩245와 옛 전남도청도 찾아 추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정성호 법무부 장관, 오늘 5·18묘지 참배

법무·경찰 지휘부 첫 방문...총 26명 참석

5·18민주화운동 46주년을 맞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 고위 간부들과 함께 5·18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한다. 과거 국가폭력과 인권침해에 대한 반성과 함께 국민을 위한 ‘새로운 법무·경찰’을 거듭하겠다는 메시지를 밝힐 예정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장관은 15일 오후 1시30분 광주 북구 운정동 5·18민주묘지를 방문한다. 이날 참배에는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검찰 수뇌부와 법무부 간부 등 총 26명이 참석한다.

법무부에서는 장·차관과 실·국·본부장, 정책보좌관, 대변인, 정책기획단장, 광주지역 보호관찰소·소년원·교도소·출입국사무소 기관장 등 18명이 참석한다. 검찰에서는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대검 기호조정부장·공공수사부장, 광주·대전고검장, 서울중앙지검장, 서울남부지검장,

광주지검장 등 8명이 함께한다. 참배는 방명록 서명을 시작으로 헌화와 분향, 경례와 묵념 순으로 진행된다. 이후 참석자들은 개인 묘역을 참배하고, 추모관 영상실로 이동해 5·18 관련 영상을 시청한 뒤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간담회는 언론에 공개된다.

이번 참배는 단순한 추모를 넘어, 과거 권위주의 시절 국가기관의 과오를 성찰하고 법무·경찰 조직의 역할을 되짚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 총책임자와 광주 국립묘지를 찾은 건 처음이다.

특히 법무부는 이번 방문 취지에 대해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국민께 새로운 법무·경찰을 선언하기 위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오월 묘역에 희생자 기리는 카네이션 물결”

5·18기념재단, 15일 민주묘지서 참여형 추모식 개최 지혜학교·전남대 인문대학 학생·시민 등 350명 참여

5·18기념재단이 제46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을 맞아 학생과 시민이 함께하는 참여형 추모행사를 연다. 재단은 15일 오전 10시30분부터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5·18 희생자들을 기리는 추모 행사 ‘오월의 꽃이 피었습니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단순 참배 중심의 추모를 넘어 학생과 시민들이 직접 열사의 묘역을 찾아 꽃을 헌화하는 참여형 추모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지혜학교와 삼계중학교, 한빛고등학교, 전남대학교 인문대학 학생들을 비롯해 5·183단체 회원과 시민 등 350여명이 참여한다.

행사는 참가자들의 합동 참배와 분향에 이어 학교별 학생 대표가 릴레이 형식으로 소년이 온다의 구절을 낭독하며 영령들의 넋을 기리는 순서로 진행된다. 이후 참가자들은 국립 5·18민주묘지와 망월동 5·18구묘지 묘소 곳곳에 카네이션 꽃바구니를 직접 헌화할 예정이다.

그동안 추모 현장에는 흰 국화가 주로 사용됐지만, 이번 행사에서는 사랑과 헌신, 존경의 의미를 담은 카네이션을 헌화해 색다른 추모 분위기를 조성한다. 재단은 헌화 이후에도 묘역 일대 카네이션에 급수 작업을 실시하는 등 추모 분위기가 이어질 수 있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올해로 2회째를 맞은 ‘오월의 꽃이 피었습니다’는 지난해 첫 행사 당시 묘역을 가득 채운 카네이션으로 참배객들의 호응을 얻었다. 재단은 이를 계기로 오월 정신을 일상 속에서 기억하는 지속 가능한 시민 참여형 추모 문화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윤복현 이사장은 “미래세대가 주도적으로 참여해 열사의 희생을 기억하고 공동체적 추모 분위기를 만든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며 “전국에서 찾아오는 참배객들이 묘역 가득 핀 카네이션을 보며 오월 정신을 다시금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재단은 오는 18일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와 유족을 초청하는 ‘5·18민주유공자 기림의 날’ 행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오늘의 날씨

☀️ 맑음 05:29 달맞이 03:53
☁️ 맑음 19:29 달맞이 17:49



광주	☀️	15~29
목포	☀️	15~27
여수	☀️	14~25
순천	☀️	13~27
구례	☀️	12~29
광주	☀️	13~26
신도	☀️	15~26
흑산도	☀️	15~24
진남	☀️	13~27
진도	☀️	17~25

목포	밀물(고)	00:34 / 12:43
	썰물(저)	06:05 / 18:15
여수	밀물(고)	07:44 / 20:16
	썰물(저)	01:31 / 13:45

여고생 피살사건 댓글 수사

만년필 ○·광주경찰청이

여고생 살해 사건과 관련해 피해 남학생을 비하·모욕하는 악성 댓글을 적발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

14일 광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국내 한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여고생 살해 사건 기사에서 악의적인 내용이 담긴 게시물 1건을 입건.

글은 “너 때문에 죽었다” 등 살해된 여고생을 돕기 위해 나섰다가 중상을 입은 또래 남학생을 비난하는 허위 내용이 적혔다고.

배리 검토를 거친 결과 경찰은 해당 게시물에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이에 경찰은 14일 관련 기업 측에 억압적 영장을 신청했고, 조만간 회신을 받을 예정. 또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모니터링해 유사 게시물 16건을 적발하고 삭제·차단을 요청.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광주 여고생 피살 사건 수사결과 발표

“당초 표적은 스토킹하던 외국인 여성...계획범죄”

흉기 구매 후 30시간 추적...증거 인멸 정황도 경찰, 살해범 장윤기 신상정보 공개...여죄 수사

광주 도심에서 발생한 여고생 피살 사건은 단순 우발 범행이 아닌 특정 여성을 겨냥한 계획범죄의 연장선에서 벌어진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14일 오전 청사 어룡홀에서 ‘광주 여고생 피살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살해범 장윤기(23)는 지난 5일 오전 0시11분께 광산구 월계동 한 대학 인근 보행로에서 귀가 중이던 고교생 A양(17)을 흉기로 살해하고, 비명을 듣고 달려온 또 다른 고교생 B군(17)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 수차례다. 경찰은 장윤기에게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를 적용했다.

△“교제 거절에 분노”...범행 시작점 경찰은 이번 사건의 출발점이 교제 요구를 거절당한 데 따른 분노와 집착이었다고 판단했다.

장윤기는 복귀 운동장 한 식당에서 함께 일하던 외국인 여성 C씨(26)와 개인적인 만남을 이어오다 정식 교제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속적으로 위협 행동을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장윤기는 약 1년간 C씨를 따라다녔고, 타 지역 이사를 준비하던 피해자에게 “광주를 떠나지 말라”고 협박했다.

지난 3일 오전에는 C씨 주거지를 찾아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다는 이유로 목을 조르고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흉기 구매 뒤 30시간 추적 이후 장윤기는 자신이 저지른 범죄 사실이 제3자에게 알려졌다고 의심하며 C씨 살해를 결심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장윤기는 같은 날 오후 5시21분께 생활용품점에서 흉기를 구매한 뒤 약 30시간 동안 C씨의 주거지와 식당 주변을 배회하며 범행 기회를 노린 것으로 드러났다. 다행히 C씨는 위협을 느끼고 이미 다른 지역으로 거처를 옮긴 상태였다.

그러나 장윤기는 이를 알지 못한 채 주변을 맴돌았고, 범행 당일 새벽 홀로 귀가하던 A양을 발견한 뒤 약 15분 동안 뒤따라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장윤기가 차량을 이동시키며 피해자의 동선을 확인했고, 약 1km를 추적한 뒤 인적이 드

문 장소에서 범행했다고 설명했다.

△“CCTV 없고 인적 드문 선택” 범행 장소 역시 계획성을 보여주는 정황으로 지목됐다. 해당 장소는 CCTV가 없고 유동 인구가 적은 곳으로, 경찰은 장윤기가 외부 시선을 피하기 쉬운 장소를 의도적으로 선택한 것으로 판단했다.

휴대전화 포렌식에서는 경찰 추적 관련 검색 기록과 함께 스토킹 신고 문자가 발송된 이후 기존 휴대전화를 버리고 과거 사용하던 공기를 다시 사용한 정황도 확인됐다. 경찰은 위치 추적을 피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흉기 유가·혈연 세탁...증거 인멸 시도 범행 이후에는 증거 인멸 시도도 이어졌다. 장윤기는 범행 직후 화장실에서 손을 씻고 차량을 버린 뒤 인근 배수로에



광주 도심에서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23·가운데)가 구속 송치되고 있는 모습.

흉기를 유기했으며, 혈연이 묻은 옷을 세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지인이 비워둔 원룸에 몰래 들어가 수시간 머물렀던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경찰은 이번 사건을 ‘이상동기 범죄’로는 보지 않았다. 범죄분석관 분석 결과와 범행 준비 과정, 특정 대상에

대한 집착, 도주 및 증거 인멸 정황 등을 종합할 때 특정 피해자를 겨냥한 계획범죄가 다른 피해로 이어진 사건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추가로 제기된 성폭력처벌법 위반 및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글·사진=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